

도로 공간 재분배 효과로 교통사고 획기적 감소 기대

대한민국 제1호 트램도시

Q. 트램 오륙도선의 도입 취지와 장단점은 무엇 인가요?

A. 도로는 넓힐 수 없는데 차량은 증가해 교통 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부산의 연평균 자동차 등록 대수는 3.6% 증가하고 있고 남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교통 체증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적 목적이 있고 또한,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버스나 마을버스 등 타 대중교통과의 이용·연계가 가능한 대중교통 개편 계획,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가로정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행자 안

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계획 등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트램은 대표적인 친환경적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같은 정시성과 시내버스보다 편리한 접근성과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유모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램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같은 개념으로 운행하게 돼 차선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 등 트램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도시에서는 도로공간의 재분배를 통해 트램,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 연계교통의 이용이 수월해 지고 도로용량이 4배 증가하여 자동차사고가 40%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607-4552



‘대한민국 제1호 트램도시’ 손글씨 쓰기 소동행사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작품 1000여 개로 만든 대형 현수막이 구청 입구에 전시 중에 있다.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우리의 자화상

이주여성들과 함께 뮤지컬 ‘홍도’에 출연해 보니

홍도는 시누이가 될 봉옥이로부터 온갖 결혼 횡방을 받는다.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광화와 결혼식을 올린다. 정작 시집을 가니 불여우 시누이보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있었다. 어느 날 집청소를 한 뒤 시누이의 월급 봉투가 없어졌고 그 누명을 쓰게 된 것. 며칠 뒤 동네이장이 손주가 주워서 가져돌던 돈봉투를 가져오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악극 홍도 이야기가 아니다. 베트남에서 시집은 며느리를 두고 이주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엿볼 수 있는 뮤지컬 이야기다.

지난 11월 14일 뮤지컬 ‘홍도’가 도시철도 대연극 지하 소극장에서 3일간의 공연을 가졌다. 사회적 가치의 예술적 전달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지원하고 남구 소재의 극단 ‘이야기’가 주최한 작품이다. 아마추어 여성 극단 소속인 필자도 몸소 시어머니 역으로 이 뮤지컬에 합류하였다. 올 초 은퇴한 남편은 인자한 시아범역을 맡았다.

대사 외우는 것은 기본이지만 중년 여성으로 역할이 만만치 않았다. 연습실을 오가는 중 길거리와 지하철도에서 대사를 읊어대다 길가는 사람들의 의아한 눈길을 받기도 했다. 한편

나는 별도로 산림치유사 수업을 받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는 카운슬링의 의사소통기법과 심리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마치 연극 공간이 산림치유의 표현력과 역사사의 실습현장인 듯했다. 평소 의사소통의 진실은 언어는 7%에 불과하고 목소리 38%, 얼굴 표정이 55%라는데 놀랐다.

거기다 무대에서 내가 설 자리를 알아차린 것은 큰 수확이다. 늘 다른 배우가 가려지지 않게 포즈를 취하고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객석의 관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평소 내 앞가림만 급급했던 나의 공간감각을 ‘암’ 시켜준 것이다. “이런 훈련을 현장에 있을 때 단련했으면 훨씬 유익했을 것”이라고 조직 생활을 막 끝낸 남편이 아쉬워했다. 뿐만 아니라 말로 들던 타국살이 이주민들의 열정과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중국 호북성 출신의 윤종은 늘 먼저 와서 청소하고 일행을 기다렸다. 홍도 역의 베트남 출신의 연아는 한국말 대사를 완벽히 외우고 내가 다음 대사를 깜빡할 때 입모양으로 사인을 보내 주었다. 길림성에서왔다는 석취원은 열악하고 공사다망한 여건에서도 씩씩하게 살고 있어, 초창기 미국 진출의 우리 교포를 떠올리게 했다. 필리핀에서 연극을 전



다문화 여성들의 애환을 다룬 뮤지컬 ‘홍도’에 출연한 배우들, 맨오른쪽이 최경옥 명예기자.

공한 렌은 딸과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한국 발음이 서툰다는 해도 친정아버지에게 연습장 동영상을 찍게 해 집에서 스스로 연기를 보완 교정했다. 그 열정으로 공연 때에 소품을 가슴 속에 준비하고 나타나 강아지, 아이, 할머니, 귀신 등 다양한 역할을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관객은 부산시민과 타 지역의 이주민들도 적잖았다. 그중 중국 출신 배우의 친정어머니 일갈이 귀에 쏘였다. 이런 극은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주 여성들을 마치 ‘애 낳는 기계’로만 취급하고 학대하 심한 집이 많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만주와 연해주로 떠나갔던 우리 선대들은 독립운동자이거나 당시 국내사정이 힘들어 해외개척의 길에 오른 사람들이다. 상당수 이주여성들은 그 당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간

교포들의 후손이다. 필리핀과 태국은 6.25전쟁 때 우리를 도운 혈맹의 나라이다. 베트남과 동남아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주요한 경제 시장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작금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연극 도중 월급봉투의 오해가 풀리고 시누이와 베트남 올래가 얼굴을 맞대며 크게 울던 대사가 다시 들린다. “이런 일 저런 일은 여기나 저기나 다 있고...”

최경옥 명예기자

소설가 강인수 제14회 오륙도문학상 대상

본상 박순미·작가상 조혁훈

부산 남구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14회 오륙도문학상 대상에 강인수 소설가가 선정됐다. 본상은 시집 ‘시간에 게’의 박순미 시인, 작가상에는 수필집 ‘색, 자연을 아우르다’의 조혁훈 수필가에게 돌아갔다.

강인수 소설가는 부경대 국문과 교수 출신으로 소설집 ‘하얀 노을’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1970년부터 50년간 남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강 소설가는 1979년 단편소설 ‘밀물(월간문학)’로 등단해 부산문학상과 한국해양문학상대상 등을 수상했다. 신인상에는 차원 씨의 시 ‘귀뚜라미’ 외 3편 집 ‘색, 자연을 아우르다’의 조혁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한편 제28호 오륙도문학 출판기념회 및 오륙도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8일 오후5시 서면 아이온파티에서 열린다.



UN평화문화특구 협의체 소식

기관명	행사명	일시	장소	관람료	문의처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무용단 제2회 정기공연 <소설> Regan	12/4(금) 20:00 12/5(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20,000원 S 10,000원	607-6000
	박진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음광>	12/08(화)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0,000원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립의 심야음악회”	12/09(수) 2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0,000원	
	부산시립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 <2020순례합창콘서트>	12/17(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0,000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0회 정기연주회 대담 없는 질문	12/18(금)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12/19(토)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제6회 정기연주회 <Travel to America>	12/22(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0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8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12/23(수) 20: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10,000원 S 5,000원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제작지원사업 <2020 영도다리 연가>	12/31(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2020 제야음악회	12/31(목) 22: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골의 아들>	12/1(화) 1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631-1377
	송년음악회 <국악의 향기>	12/3(목) 19: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631-1377
	송년음악회 <Sweet Dream in December>	12/4(금) 19: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631-1377
	상주·제천·국악그림길 <뮤지메이드인부산>	12/18(금) 19: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010-8288-0900
	세 번째 정기공연	12/27(일) 1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631-1377
	문화가 있는 날마티네-Song for you	12/30(수) 19: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010-5579-9631
	수향동우회 서예전	12/2(수)~6(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무료	010-2239-4645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제48회 졸업전시회	12/8(화)~20(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무료	
	부산남구문화원 2020 반딧불이 토닥토닥 동아리 작품전시회	12/21(월)~25(금) ※ 12/24-12/25 일예 정회원만 입장가능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무료	
	B-side 전시 부산의 간판 <부산의 사라져 가는것에 대한 기록>	12/18(금)~20(일)	부산인스타이션	무료	316-7631
(재)부산문화재단	최태하마케팅 Under 30	11/27(금)~12/14(월)	온라인	무료	745-7296
	창작공간 기반형 기획전시 <Rainbow-Wire>	11/21(토)~12/20(일)	F1963 석천관	무료	754-0431~2
유엔평화기념관	2020 보통가족 사랑의 감성잡지나눔행사	12/11(금)	유엔평화기념관	-	901-1402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사업 시행 안내

재생원료 해외 수입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국내 페트병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이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④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④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 문의 : 남구청 자원순환과 ☎607-4451

턴투워드부산 전야음악제 제2회 영웅환타지아 성료

6.25전쟁 70주년과 턴투워드부산 국가기념일 격상을 기념하는 제2회 영웅환타지아가 지난 11월 10일 부산

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열렸다. 이날 무대는 11월 11일 턴투워드부산 전야제 음악회로 소프라노 황신영·장문선, 플루트 장예지, 클라리넷 유지훈, 피아노 최민경의 3중주와 박가령 외 4인의 오가리나 앙상블 등의 연주가 펼쳐졌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음악회 수익금 일부는 유엔참전국인 에티오피아의 강유부대의 후손들에게 후원될 예정이다.

한편 유엔평화공로상에는 유엔조각 공원 조성을 지휘한 이영근 전 남구청장이 받았다.



학교 소식

전자기기기능사 시험 139명 합격

대양전자고등학교는 산업인력공단 주관의 2020학년도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시험에 3학년 학생 139명이 합격해 99.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산업별 맞춤형 고등학교 필기면제 실기시험으로 지난 10월 본고실습실에서 실시됐다. 합격생들은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으로 감소기업 취업(병역특례)과 대학진학에서 부가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40-0545

소방관에 보낸 응원메시지 화제

용문초등학교는 제58회 소방의 날을

찾아가는 생태체험교실 열려

석포초등학교는 지난 11월 12~13일 이틀간 첨단미래교실에서 전교생이 참여한 ‘2020 찾아가는 생태체험교실’을 열었다. 국내·외 곤충 표본뿐 아니라 나비류, 딱정벌레류, 물속 곤충 등 100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들을

‘2020 독서토론한마당’ 참가

성지고등학교는 지난 11월 14일 부산시교육청 주최 ‘2020학년도 고등학교 대갈이 독서토론한마당’에 참가했다. 고등학교 독서토론동아리 40개 팀 중 권역별로 우수한 학교에만 ‘독서토론한마당’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성지고는 5권역에서 1위를 차지해 참가 자격을 부여받았다. 성지고는

시기반교육 박람회 열려

연포초등학교는 11월 23일 교내 강당과 창의융합실에서 인공지능기반교육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인공지능기반의 다양한 교실수업 실천사례와 교육활동 결과물을 전시하고 최근 완공한 인공지능 체험존에서 학생들이 실제 체험 기회를 가졌다. 연포초등학교는 최근 전자신문 주관, 교육부 후원의 ‘2020 정보과학 인재육성’ 학교 부문에서 전국 1위로 교육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 폐렴구균이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급성 중이염, 폐렴 및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의 하나이며,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은 영아 및 어린 소아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폐렴구균은 주로 호흡기 비말(미세 침방울)을 통해 사람 사이에 전파되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증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종 대상 및 내용

대 상	장소	접종명	접종 횟수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5.12.31. 이전 출생자)	전국 위탁의료기관	폐렴구균 23가다당질 백신 1회 무료접종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 접종

○ 접종자 준비사항

안전한 접종을 위한 방법	
▷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에 사전 확인 후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 위생을 시행해 주세요.	
▷ 기저 질환이 있으시면 예방접종 가능여부를 주치의와 상담 먼저 받아보십시오.	

○ 문의사항 : 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607-6424~7)